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미야자키 국제페스타 월드 테라스 in 2024

일 시: 9월21일(토) 11:00~16:00 장 소: 미야자키공립대학



주최:일반사단법인 미야자키청년회의소 공동주최: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제19회 아트페스티벌「외국인이 본 미야자키」작품전

미야자키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미야자키」를 테마로 한 예술 작품을 출품합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합니다!여러분의 한 표로 우수상이 정해집니다!



세계와 친구 교류 구역

여러 나라의 소개 부스입니다. 미야자키에 사는 외국인 분들과 교류합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와 현 내 국제교류단체의 출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퍼포먼스

여러 나라의 음악과 춤을 같이 즐기시다!



전통문화 체험

일본 갑옷을 입어보고 다도를 체험하며 일본 문화를 접해보지 않겠습니까?



직업체험 구역

경찰차와 고소작업차 등 업무용 차량의 승차 체험이 가능합니다.



◇시 간: 11:00~13:00 다도
14:00~16:00 일본 갑옷 입어보기

방재 구역

방재 차량의 전시 및 승차 체험이 가능한 코너입니다.



지역 포럼

지역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진 시뮬레이션 체험: 11:00~13:00

스포츠 구역

어린이판 SASUKE에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음식 구역

인터넷셔널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이 준비합니다!



서예 체험 ※무료·자유 참가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 '서예 체험코너'를 설치합니다. '미야자키'를 주제로 좋아하는 글자를 써서 9월의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하지 않겠습니까?

◇일 시: 7/9(화)~8/10(토) 10:00~19:00

※일·월요일·공휴일은 휴무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층

미야자키현국제플라자

◇문 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원과의 답사회! ※무료·사전 신청 필요

현의 국제교류원과 즐겁게 이야기해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본어&영어)

◇일 시: ①8월 9일(금) 15:00~16:00

②8월 23일(금) 15:00~16:00

◇마 감: ①8월 7일(수) ②8월 16일(금)



★싱가포르에서 온 유딩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 (일본어&중국어)

◇일 시: 8월 6일(화) 15:00~16:00

◇마 감: 8월 2일(금)



★한국에서 온 해정 씨와 함께 이야기합시다!(일본어&한국어)

◇일 시: 8월 8일(목) 15:00~16:00

◇마 감: 8월 6일(화)



일본어 자원봉사자 소개

※무료·사전 신청 필요



미야자키현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께 일본어 자원봉사자를 소개합니다.

학습 장소와 시간, 내용은 학습자와 자원봉사자가 정합니다.

◇대 상: 현 내 거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미야자키 국제플라자

◇정 원: 각 4명(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한 선착순)

※신청은 전화, 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제19회 아트 페스티벌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



■작품모집!

미야자키현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의 아트 작품을 모집합니다!

◇테 마: “미야자키”

◇부 문: 사진, 회화, 서예, 수공예(영상은 제외)

◇출품가능 작품수: 각 부문별로 한 명당 작품 2점 이내

◇사이즈: 50cm×50cm이내

◇제출 방법: 작품 제출 양식과 함께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 마감: 8월 20일(화)

※작품 제출 양식은 하단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https://www.mif.or.jp/korean/news/4648/>

※전 작품을 전시합니다.

◇시 상: 관람객의 투표에 의해 각 부문의 상위 입상자를 결정.

※작품을 제출한 분들께는 참가상을 드립니다.



■작품전

1. 9월 4일(수) ~9월 18일(수)

10:00~19:00 휴관일 : 일·월·공휴일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2. 9월 21일(토) 11:00~16:00

장 소: 미야자키공립대학 부속도서관 크로스라운지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 카운터 자원봉사자 모집

현내재주의 18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플라자 업무를 도와주실 카운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9/3 (화) 까지 신청바랍니다. 《응모다수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있음》

※국적은 관계없으나, 간단한 일본어로 대응 가능한 신 분들에 한합니다.

◇활동기간: 2024년 10/1(화)~2025년 3/29(토)

◇활동일시: 화요일~토요일 중 주1회

※매주 같은 요일, 시간대에 활동하시게 됩니다.

①10:15~12:45 ②13:00~15:30

◇내 용: 방문객 대응, 도서 대여와 반환 수속, 문서발송 보조, 도서·자료정리, 재활용 우표의 정리와 발송 등

◇그 외: 교통비, 사례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은 당협회가 부담하며, 카리노 미야자키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권을 드립니다.

◇신청·문의: (公財)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로부터의 안내문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회(중국어)

※무료·사전 신청 필요

생활 속에서 곤란한 점을 중국어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지킵니다. ※예약제 당일 직접 오셔도 대응 가능.

◇일 시: 8월 31일(토) 14:00~16:00

◇장 소: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대면, 전화, 온라인(ZOOM) 가능)

◇접 수: 4 명

◇신청·문의: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층)

Tel:0985-41-5901 Fax: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



지역별 행사

<에비노시>

외국인 지원 상담회 & 다과회 공지



시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분들,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일본어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일본 문화를 알려주면 좋겠다.’

‘물건 사는 법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 등 생활 전반에서 어

려운 점을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당일은 차를 마시며 교류하는 다과회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려주세요.

◇일 시: 9월 1일(일) 14:00~16:00

◇장 소: 에비노시 국제교류센터

◇신 청: 상담일의 2일 전까지 전화해 주세요.

에비노시 국제교류센터 Tel:0984-35-3211

<다노초>

제 32회 다노초 다이코 페스티벌

~북이 좋아! 축제가 좋아! 여름은 다노!~

※무료

다노 지역의 전통 공연인 「아마다이코(雨太鼓)」 등, 박력 있는 북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꼭 방문해 주세요.

◇일 시: 8월 31일(토) 16:00~21:00

◇장 소: 미야자키시 다노 운동공원 다목적 광장

◇문 의: 타노종합지소지역시민복지과

Tel:0985-86-1111



테게테게 미야자키 라이프

<외국어 공부>



국제교류원
양해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는 새로운 외국어 공부에 몰두하는 중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왜 스페인어나고요? 10년 전, 멕시코의 작은 도시에 있는 친구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스페인어를 전혀 할 수 없어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자기 딸처럼 챙겨주시던 친구의 부모님. 마지막 친구의 집을 떠날 때는 두 분 다 눈물로 저를 안아주시던 게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때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지금까지는 작심삼일의 반복으로 10년간 할 수 있는 말은 “Yo estudio español(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합니다).”였지만, 올해야말로 큰마음을 먹고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의 가장 큰 난관인 동사의 성수 변화로 매일매일 머릿속이 가득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리고 대단함, 그리고 언어 공부에는 꾸준히 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고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스페인어가 술술 입에서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일단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분 동안 멈추지 않고 스페인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Vamos!

